

<2015.06.22.>

## 전북도민일보

2015년 06월 22일 월요일 014면 오피니언

### 도민광장

##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을 생각하며



### 이 현 갑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장

고창군은 2013년 5월 28일 유네스코로부터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상을 드높였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에 따라 지정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 대상지역을 말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자연유산과 달리, 생물다양성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얻고, 그 이익을 다시 생물권 보전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부터 고창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을 고인돌 유적이 증명해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중 가장 오래 된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고, 가장 많은 고인돌이 고창에 밀집해 있다는 점은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가진 고창에 모여 살았음을 알게 해 준다. 그 때문인지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은 태고적부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만들어진 다채로운 문화가 어느 곳보다 조화롭게 보전되어 있다.

선대의 노력과 땀 덕분에 우리세대에서 찬란한 자연문화유산이 빛을 발하는 절정의 시대를 맞이한 만큼 우리도 더 잘 가꾸고

관리해 후손들에게 소중히 물려줄 책무가 있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자 세계인의 자원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고창군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2017년까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둘째, 생물권보전지역의 5개 핵심지역(고창·부안 갯벌 랍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윤곡람사르습지,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동립저수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과 멸종 위기종 복원, 외래종 제거사업 등 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셋째, 자연 스스로 복원한 저층 산지습지로 평가 받는 윤곡습지의 복원사업과 개선사업을 추진,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류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해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넷째,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 고창군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 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일 것이다. 민선 6기 박우정 군수가 제시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도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양적 확충보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가지되 작은것부터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위상에 맞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와 불법 적재물 정비 등 내 집 앞부터 하나하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름이나 분노를 방류하는 일은 삼가고, 환경정화를 위해서 매년 나무 한그루 심기를 권장하고 싶다.

이런 환경보호 정신에 전 군민이 동참하였을 때 우리의 청정고창은 밝고 아름답게 보전돼 진정한 '명품 고창'이 될 것이다.